

지역 소식통

고창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신축지원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이 아동들의 구호와 복지 그리고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구호개발 NGO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농어촌아동지원사업인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신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올해 중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말까지 흥덕면 흥덕리에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은 550㎡ 규모의 지역아동센터를 건축한 뒤 고창군에 기부하며 완공 후 운영 컨설팅과 모니터링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고창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 시설로 현재 지역 내 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170여명의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급식소 위생 점검

정읍시보건소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사업체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9월 중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다가올수록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미리 예방하고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지역 내 식품제조업소 70개소와 병원·사업체 집단 급식소 34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생산 작업 일지와 원료 수불에 대한 관계 서류 작성 비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허위 변조 표시 행위, 무허가(무신고)제품 사용 보관 여부 등이다. 또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과 종사자 건강 진단 실시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보건소, 건강교실 참여자 모집

부안군보건소는 신체활동 부족으로 체지방률이 높고 만성질환 발병 우려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걷기운동 생활화를 통해 일상생활 신체 활동량 증가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명품건강교실을 운영키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 보건소 명품건강교실은 오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총 24회 운영되며 만 70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5명이며 사업 전후 기초 검사, 사업 전후 체 성분 분석 및 식습관 평가, 운동실 기구를 이용한 근력·유산소운동, 생활체조, 세라 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건강교육 등이 이뤄진다. /부안=이옥수 기자

내실있는 재정운용 '주목'

정읍시, 건전재정 운영... 지방채 제로 등 큰 성과 거둬

2018년도 예산편성 시기를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관련 지침 시달회의를 갖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해 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정운영 자가 진단(정읍시 지방재정건강설립)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민선 5, 6기 정읍시정을 이끌어 오고 있는 김생기 시장은 5기 시장 취임 당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방채 제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올해 2026년까지 상환해야 할 지방채 428억원을 조기상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749억원이던 지방채를 매년 약 44억원씩 상

환하면서 철도특화단지 조성 및 백제가요 정읍시 관광지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은 추진하면서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정부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선심성·소비성 경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부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18년에는 원금과 이자를 이자를 함께 70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조기상환한 만큼절감액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를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이후에도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과소 및 읍면동 예산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 시달회의를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달회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여건의 경우 자체수입은 소비심리 개선과 올해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로 신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점수입 또한 국제적 세입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건전 운영,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행사·축제 효율화 도모와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와 의무사항 준수,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성과 부진 사업 폐지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부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임시 개장

진서면 곰소다용도부지에

남부안농협이 200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난 1일 부안군 진서면 곰소다용도부지에 임시 개장했다.

남부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사업비 37억 6000만 원이 들어 지상 2층 1073㎡ 규모로 1층은 로컬푸드 직매장·농협 하나로마트·사무실·포장실·저온저장실 등이, 2층은 체험장과 카페 등으로 조성됐다.

특히 남부안농협은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지난 2년 간 생산자교육과 생산체계를 준비했으며 남부안권 3개면(보안·진서·쑤포면) 105개 마을 178개 농가가 출하 약정을 마쳤다.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농가 200여 명이 직접 생산한 채소, 과일, 특용작물, 발효식품, 잡곡류, 건조농산물, 축산물 등 80여 개 품목을 판매하며 앞으로 방문한 관광객을 위해 휴대가 용이한 소포장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은



남부안농협이 200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난 1일 부안군 진서면 곰소다용도부지에 임시 개장했다.

생산자 실명제로 신중한 야채를 중심으로 제공할 방침이며 입점 희망 농가는 조직과 교육과정 이수 및 상품교육 등을 거쳐야 한다.

남부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다음 달 중순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부안농협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하나로마트의 물품이 겹치지

않게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안전한 관료와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고창군 '볼런투어' 활동 전개

자원봉사의 보람·여행의 재미 함께 느껴

고창군이 봉사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볼런투어 활동을 전개했다. 최근 진행된 볼런투어 활동은 남양주시 수동면 자원봉사단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볼런투어'는 자원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이 결합한 신개념 봉사활동으로 봉사의 기쁨과 여행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1석 2조의 프로그램이다.

이번 볼런투어는 식도라미마을체험사업단과 고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주관했으며 남양주시 수동면 자원봉사단은 상하면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마을과 고창재가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레크레이션과 기타연주공연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고창군 12개 식도라미 마을 중 공음면 중여마을과 심원면

하전마을에 방문해 고창군 마을 향토음식도 맛보고 체험 활동을 하고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무공해 농산물을 구입도 하고 선운산 도립공원과 상하농원에서 관광 및 체험도 즐겼다.

볼런투어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어르신 분들이 일상을 벗어나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볼런투어를 통해 고창군의 다양한 마을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고창군에 와서 즐겁게 관광하고 보람차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4개 사업 선정

정읍시가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에서 4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분야에 신대인 선도지구와 북면 일반지구, 창조적마을만들기 분야에 태인 분동마을과 신내 백필마을이 선정됐다. 시는 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도비 130억원에 시비 20억원을 더한 총 150억을 투입,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은 교육과 의료, 문화·복지·경제 등 읍면 소재지의 중심 기능을 활성화 해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거점육성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주민 컨설팅과 주민·행정 간 협력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

해 예비사업 내용 보완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역 개발 전문가들이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 사업을 민선 5기부터 희망하는 읍면과 마을의 신청을 받아 농촌현장포럼,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단계별 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등 공모사업에 전라로 대응해 왔다. 2019년 신규 공모사업에서도 다수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694-8980
www.gangsanwine.com